

Morning Meeting Brief

Highlights ...

투자포커스

조정 국면의 투자 아이디어

- 한국 대통령선거의 핵심 이슈는 경제민주화. 주가 측면에서 순환출자 해소 이슈 영향이 작고,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되어도 이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LG, GS, CJ, LS, 신세계, KCC가 대안적 선택이 될 수 있음
- 신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와 시장 수용도를 나타내는 Hype Cycle은 주가의 방향성과 유사
- Hype Cycle은 기술촉진→과잉기대→실망→재조명→보급의 단계로 구성.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잉기대 국면이 아닌 4번째 단계인 재조명 국면에 위치에 있는 신기술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

오승훈 769.3803 oshoon99@daishin.com

투자분석

조건부 확률의 활용

- 이전기간 초과상승 또는 초과하락 이후 업종별로 추세 연장 또는 평균반전의 확률이 다르므로 이를 업종 비중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과거 5년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추세 연장 및 평균반전이 나타나는 업종을 확인
- 이전 4주간 지수 초과상승 발생시 비중확대가 유리했던 KRX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소비자유통 업종

이승호 769.2076 sungho@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LG전자: 스마트폰, 수익성 변화는 시작되었다.

- 2012년 3분기에 휴대폰은 흑자전환, 전사적인 영업이익은 3분기 저점으로 4분기 이후에 증가하는 국면으로 진입
- 2013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LTE 중심으로 M/S 증가 가능성 높음
- 옵티머스G, LG전자 스마트폰 변화의 시작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삼성전기: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인다.

- 2012년 3분기 영업이익(1,844억원)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시장 확대는 MLCC, 카메라모듈 매출 증가로 연결
-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그림(매출 및 이익 증가)에 초점 유효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현대제철: 2011년 4Q의 재현일 것인가?

- 국내외 제품단가 하락폭 예상보다 커 3Q 및 4Q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춤
-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및 EPS 전망치를 각각 평균 13.9%, 13.6%씩 하향 조정함
- 하지만 2013년 하반기부터 3고로 가동에 따른 성장 모멘텀은 유효할 전망

문정업 769,3068 jeongup@daishin.com

투자포커스

조정 국면의 투자 아이디어

Strategist 오승훈 769-3803 oshoon99@daishin.com

경제민주화와 주가, 기술혁신 사이클과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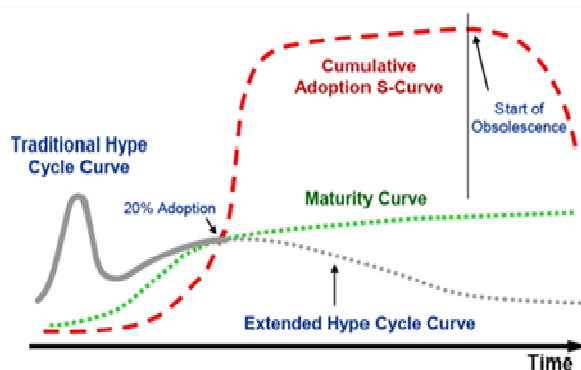
경제민주화와 주가

지금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대기업, 수출, 제조업 중심의 기존 경제구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주가 측면에서는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지배구조 변화 이슈에 덜 민감한 대기업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순환출자 해소 이슈 영향이 작고,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되어도 (자회사 최저 지분율 상장 20%에서 30%, 비상장사 40%에서 50%로 상향을 가정) 이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LG, GS, CJ, LS, 신세계, KCC가 대안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규제 강화의 반대편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상장기업 중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357개, 시가총액은 6%를 차지한다. 중견기업 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357개 중견상장기업 중 업력, 재무안정성, 실적지속성을 감안한 종목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혁신 사이클과 주가

신기술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전 나타나는 시장의 관심도와 시장 수용도를 나타낸 것이 Hype Cycle이다. Hype Cycle은 주가에도 좋은 시사점을 준다. Hype Cycle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관심도, 즉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애플에도 시련이 있었다. 스마트폰 점유율이 10%대 머물렀던 2007~2008년 애플의 주가는 높았던 기대가 낮아지면서 큰폭의 조정을 보였다. 이후 재조명 과정을 거친후 본격적인 S커브를 향유하게 된다. Hype Cycle은 기술촉진→과잉기대→실망→재조명→보급의 단계로 구성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신기술은 Hype Cycle의 4번째 단계인 재조명 국면에 있는 기술들이 될 것이다. 특히 재조명 국면 중 2년내 보급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신기술은 Hosted Virtual Desktops(데스크탑 가상화), Media Tablet(아이패드, 아마존 킨들, 갤럭시 탭), Predictive Analytics(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영역의 일부)이다.

그림 1. 일반적인 제품주기와 신기술 Hype Cycle



Source: Gartner (July 2007)

자료: Gartne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애플 주가의 Hype Cycle



자료: Gartne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분석

조건부 확률의 활용

Strategist 이승호 769-2076 sungho@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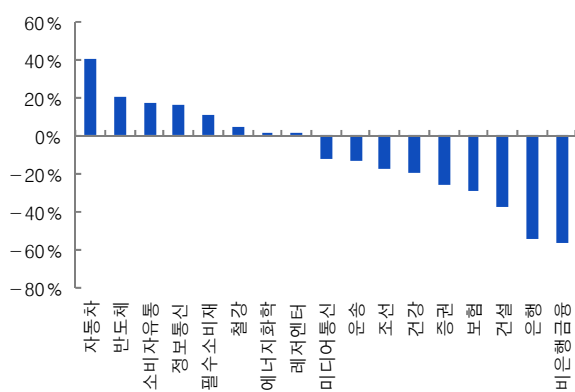
조건부 확률을 섹터 비중조절에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업종 또는 종목의 이전기간 벤치마크 초과상승 여부와 조건부 확률통계를 활용하여 이후기간에 대한 투자판단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부 업종과 종목은 이전기간에 벤치마크를 초과상승했다면 비중을 추가로 확대해야 했지만 다른 업종과 종목들은 평균반전을 예상하며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했다. 한편 이러한 조건부 투자의 활용도는 업종과 종목별로 상이하였다. 업종과 종목에 대한 비중조절에서 첫번째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업종/종목의 펀더멘털이겠지만 상대수익률의 조건부확률 통계로 이를 보완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RX업종별로 보면 이전 4주간 벤치마크(KOSPI200 지수)를 초과상승(Outperform)한 경우 비중을 확대했어야 하는 KRX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소비자유통, 정보통신의 순이었다. 반대로 평균반전을 예상하고 비중을 축소했어야 하는 업종은 비은행금융, 은행, 건설, 보험, 증권 섹터의 순이었다. 이전 4주간 벤치마크를 초과하락(Underperform)한 경우 평균반전을 기대하고 비중을 확대했어야 하는 업종은 레저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보험, 건강, 에너지화학의 순이었다. 반대로 추세적 부진을 예상하고 비중을 축소했어야 하는 업종은 운송, 증권, 소비자유통, 건설 섹터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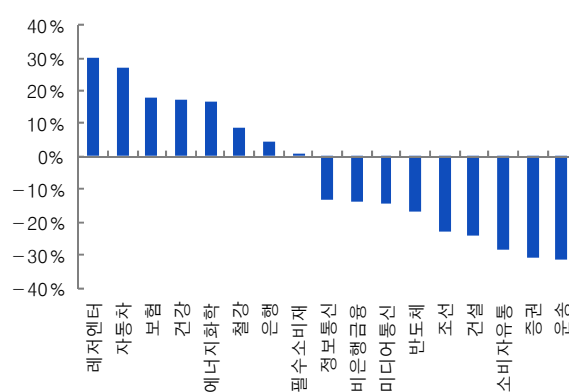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지난주말 4주 상대수익률 기준으로 KRX업종 중 이후 4주간 가장 유망한 업종군은 자동차, 반도체, 소비자유통으로 판단된다. KOSPI 50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호남석유,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유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K200 초과상승시 fC (KRX업종별, 4주 관찰 & 투자)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현금배당 제외한 주가상승 수익률

그림 2. K200 초과하락시 fC (KRX업종별, 4주 관찰 & 투자)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현금배당 제외한 주가상승 수익률

Earnings Preview 기업분석 2012.10.17

LG전자
(066570)

스마트폰, 수익성 변화는 시작되었다.

투자포인트

- 2012년 3분기에 휴대폰은 흑자전환, 전사적인 영업이익은 3분기 저점으로 4분기 이후에 증가하는 국면으로 진입
- 2013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LTE 중심으로 M/S 증가 가능성 높음
- 옵티머스G, LG전자 스마트폰 변화의 시작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BUY

[매수, 유지]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현재가 68,600

목표주가 (유지) **95,000**

KOSPI	1941.54
시가총액	11,544 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0%
자본금(보통주)	904 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3,300 원 / 56,10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33 억원
외국인지분율	19.9%
주요주주	LG 33.7%
	국민연금공단 7.4%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1.0	-9.4	15.5	-3.8
상대수익률	3.0	-6.3	8.1	-9.1



Comment

투자 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95,000 원 유지

IFRS 연결기준으로 LG전자의 2012년 3분기 전체 매출은 12조 8,8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 영업이익은 1,96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될 전망이다.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지난 7월, 8월 기준 추정치(시장)대비 낮아졌으나 9월 이후 추정치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3분기 영업실적 가운데 주요한 특징은 휴대폰(MC) 부문의 흑자이다. 4분기에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및 LTE 비중 확대에 따라 마진율이 개선되면서 흑자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시점에서 휴대폰 수익성의 턴어라운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중 2위군에서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 2013년 연간 영업이익 증가(34.6% yoy)분을 반영하면 주가 상승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Buy)', 6개월 목표주가는 95,000원을 유지한다.

2012년 3분기 실적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확정치		대신증권 추정치			컨센서스
	3Q11	2Q12	3Q12(F)	YoY	QoQ	3Q12
매출액	12,897	12,859	12,889	-0.1	0.2	12,890
영업이익	-32	349	196	흑전	-43.7	217
순이익	-424	156	134	흑전	-14.2	226

주: 연결인 경우 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의미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0A	2011A	2012F	2013F	2014F
매출액	55,754	54,257	51,504	55,488	59,085
영업이익	176	280	1,193	1,606	1,789
세전순이익	435	-399	1,052	1,554	1,763
총당기순이익	1,282	-433	686	1,243	1,410
지배지분순이익	1,227	-470	672	1,218	1,388
EPS	8,453	-3,190	4,079	7,419	8,455
PER	14.0	NA	16.8	9.2	8.1
BPS	78,130	71,303	73,809	78,780	83,817
PBR	1.5	1.0	0.9	0.9	0.8
ROE	10.0	-3.7	5.1	8.8	9.4

주: 영업이익은 회사발표 기준, EPS와 BPS, ROE는 지배주주 수치 기준

자료: LG전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Earnings Preview 기업분석 2012.10.17

삼성전기
(009150)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인다.

투자포인트

- 2012년 3분기 영업이익(1,844억원)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시장 확대는 MLCC, 카메라모듈 매출 증가로 연결
-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그림(매출 및 이익 증가)에 초점 유효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BUY

[매수, 유지]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현재가 88,000

목표주가
(유지) 130,000

KOSPI	1941.54
시가총액	6,646 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6%
자본금(보통주)	388 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1,000 원 / 69,50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58 억원
외국인지분율	18.8%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4 인 23.7%
	국민연금공단 6.1%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6.2	-9.3	-15.4	5.8
상대수익률	-4.4	-6.2	-20.8	0.0



Comment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130,000 원 유지

IFRS 연결기준으로 삼성전기의 2012년 3분기 전체 매출은 2조 8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5.3% 증가, 영업이익은 184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8.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전분기에 이어 수익성 호전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4분기 및 2013년 1분기의 영업이익이 2012년 3분기 대비 감소하나, 이는 계절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와 태블릿PC 시장 확대로 MLCC의 매출 및 이익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에 투자방향은 2013년 제품별 글로벌 경쟁력 확대와 이익 증가에 초점을 맞추면 현주가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비중을 두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6개월 목표주가는 130,000원을 유지한다.

2012년 3분기 실적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확정치		대산증권 추정치			컨센서스 3Q12
	3Q11	2Q12	3Q12(F)	YoY	QoQ	
매출액	1,929	1,908	2,008	4.1	5.3	2,039
영업이익	69	156	184	167.6	18.1	181
순이익	65	135	150	130.4	10.7	146

주: 연결인 경우 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의미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0A	2011A	2012F	2013F	2014F
매출액	5,651	6,032	7,605	8,333	8,847
영업이익	498	321	612	671	718
세전순이익	569	364	579	649	693
총당기순이익	667	392	534	584	625
지배지분순이익	555	349	487	532	569
EPS	7,386	4,648	6,485	7,089	7,582
PER	16.8	16.7	13.6	12.4	11.6
BPS	44,782	45,198	50,719	56,821	63,398
PBR	2.8	1.7	1.7	1.5	1.4
ROE	18.3	10.0	13.1	12.7	12.2

주: 영업이익은 회계법표 기준,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수치 기준

자료: 삼성전기, 대산증권 리서치센터

탐방 Comment 기업분석 2012.10.17

현대제철 (004020)

2011년 4Q의 재현일 것인가?

투자포인트

- 국내외 제품단가 하락폭 예상보다 커 3Q 및 4Q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춤
-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및 EPS 전망치를 각각 평균 13.9%, 13.6%씩 하향 조정함
- 하지만 2013년 하반기부터 3고로 가동에 따른 성장 모멘텀은 유효할 전망

문정업 769,3068
jeongup@daishin.com

노경욱 769,3069
nku12@daishin.com

BUY

[매수, 유지]

철강금속업종

현재가 81,000

목표주가
(하향) 100,000

Comment

투자자의견 매수(Buy)유지하나, 목표주가를 13% 하향 조정함

향후 현대제철의 주가는 1) 강판류 내수단가의 추가 하락 폭과, 2) 전기료에 이은 고로까지의 감산 확산 여부에 따른 4분기의 판매량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즉, 지난 2011년 3분기부터는 제품가격 약세에 따른 통당 마진 위축 속에 판매량 확대 전략으로 절대 영업이익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향후 양적 성장 마저 위축 되면 절대 영업이익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에 대해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및 EPS를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대비 13% 하향한 10만원으로 조정한다. 실적 하향 조정 이유는 국내외 제품단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목표주가 10만원은 향후 Forward EPS 8,751원의 PER 11.4배수준이며, 올해 예상 BPS의 PBR 0.87배 수준이다.

3분기 영업이익, 2,372 억원으로 전망

현대제철의 3분기 영업이익은 당초 예상보다 13.9% 낮은 2,372억원(-17% yoy, -28.6% qoq)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2,469억원)대비 3.9%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9월 들어 수출가격이 급락하고 국내 철근가격 인상도 제대로 반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분기별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부터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0A	2011A	2012F	2013F	2014F
매출액	10,235	15,260	14,636	14,943	17,213
영업이익	1,059	1,304	987	1,153	1,352
세전순이익	1,040	909	885	988	1,109
총당순이익	922	747	708	790	887
지배지분순이익	922	747	708	790	887
EPS	10,823	8,757	8,294	9,264	10,396
PER	11.5	10.9	9.8	8.7	7.8
BPS	98,822	106,885	114,610	123,305	133,132
PBR	1.3	0.9	0.7	0.7	0.6
ROE	12.3	8.5	7.5	7.8	8.1

주: 영업이익은 회계별 기준,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수치 기준, 자료: 현대제철 대산증권 리서치센터

KOSPI	1941.54
시가총액	6,910 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6%
자본금(보통주)	427 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7,500 원 / 76,20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51 억원
외국인지분율	18.9%
주요주주	기아자동차 외 3 인 33.8%
	국민연금공단 9.1%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4.5	-11.7	-2.5	-9.5
상대수익률	-2.6	-8.7	-8.7	-14.4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 원)

구분	10/16	10/15	10/12	10/11	10/10	10월 누적	12년 누적
개인	33.0	43.6	182.4	542.9	389.4	1,587	-10,946
외국인	-40.5	-169.7	-288.0	-197.4	82.3	-365	14,499
기관계	12.5	139.0	114.7	-342.0	-278.9	-590	686
금융투자	-7.4	21.7	47.4	24.3	58.1	256	1,537
보험	22.2	0.3	33.4	10.4	33.4	223	2,330
투신	-4.0	-35.2	-32.7	-31.8	-63.4	-573	-5,091
은행	1.3	12.1	9.4	-1.2	12.7	44	446
기타금융	-4.7	-0.3	-1.8	-1.7	1.9	-13	-105
연기금	76.5	55.3	-0.9	-15.5	2.9	11	1,699
사모펀드	27.6	13.9	6.1	-35.1	45.3	-10	-78
국가지자체	-99.0	71.3	54.0	-291.4	-369.8	-528	-53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 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41.7	SK 텔레콤	18.4	한국전력	26.8	LG 화학	29.5
LG 화학	16.7	NHN	17.2	SK 하이닉스	26.1	현대차	16.4
현대모비스	15.0	LG 생활건강	15.4	SK 텔레콤	17.8	현대모비스	14.7
삼성엔지니어링	11.4	아모레퍼시픽	13.7	LG 디스플레이	16.0	삼성물산	13.1
CJ 제일제당	9.6	LG 전자	13.4	LG 전자	15.3	삼성엔지니어링	10.4
KB 금융	6.9	기아차	11.0	아모레퍼시픽	13.2	CJ 제일제당	10.4
호텔신라	6.5	한국전력	9.6	NHN	12.9	현대중공업	10.0
삼성물산	6.1	농심	8.6	KODEX 레버리지	11.9	대우조선해양	9.7
엔씨소프트	5.8	GKL	8.1	SK 이노베이션	11.1	두산중공업	7.1
두산중공업	4.4	현대중공업	7.6	일진디스플레이	7.2	POSCO	6.6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 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네오위즈게임즈	10.0	셀트리온	3.2	이엘케이	4.0	KG 이니시스	26.0
KG 이니시스	5.5	오스템임플란트	3.1	한국사이버결제	3.8	CJ E&M	6.9
에스엠	2.8	안랩	2.3	에스맥	2.0	에스엠	6.4
CJ E&M	2.2	서울반도체	2.3	파트론	1.2	바이오랜드	4.1
메디톡스	1.9	멜파스	1.8	GS 홈쇼핑	1.2	컴투스	3.0
파라다이스	1.9	파트론	1.5	씨젠	1.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0
아이디스	1.5	iMBC	1.0	디지털옵틱	1.2	성우하이텍	2.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	씨젠	0.9	포스코엠텍	1.1	네오위즈인터넷	2.4
위메이드	1.2	태광	0.9	모두투어	0.9	사파이어테크놀로지	2.3
다음	1.1	GS 홈쇼핑	0.9	비아트론	0.9	에스텍파마	2.1

자료: KOSCOM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 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한국전력	138.4	3.5	NHN	164.8	0.9
현대모비스	49.3	-1.5	삼성전자	97.6	-3.1
신한지주	42.6	-0.9	LG 전자	65.8	1.0
삼성물산	35.4	-3.9	하나금융지주	56.9	-3.0
한국타이어	30.8	-4.1	POSCO	55.5	-1.4
롯데쇼핑	28.8	6.6	SK 하이닉스	52.2	-3.0
두산중공업	27.8	-5.4	농심	49.4	2.4
한국가스공사	26.3	-5.5	아모레퍼시픽	40.4	-1.5
KB 금융	25.4	0.3	엔씨소프트	39.2	-3.8
CJ 제일제당	25.4	5.2	GKL	36.7	-1.3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 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NHN	113.6	0.9	LG 화학	87.0	-0.3
SK 하이닉스	67.9	-3.0	현대차	78.3	-3.8
LG 전자	57.4	1.0	기아차	77.9	-6.0
SKC	43.3	4.1	삼성전기	76.5	-6.2
KT&G	42.0	2.8	삼성물산	63.2	-3.9
아모레퍼시픽	41.6	-1.5	삼성전자	62.3	-3.1
한국전력	40.1	3.5	두산인프라코어	61.3	-3.6
SK 텔레콤	38.2	1.7	삼성중공업	51.9	-6.5
농심	36.0	2.4	엔씨소프트	51.7	-3.8
LG 디스플레이	33.7	7.6	현대모비스	51.3	-1.5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0/16	10/15	10/12	10/11	10/10	10월 누적	12년 누적
한국	1.9	-150.5	-255.3	-177.6	54.9	-311	12,906
대만	-95.5	-107.9	-209.5	-292.2	0.0	-196	2,573
인도	--	0.0	85.1	186.1	78.6	1,817	17,950
태국	--	-62.7	-14.9	-31.8	-291.8	-325	1,807
인도네시아	--	-4.8	28.4	-15.8	12.5	132	1,864
필리핀	-9.9	-12.4	-307.2	-7.6	-13.3	-315	1,870
베트남	-0.4	0.2	0.0	-0.3	0.3	1	14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